

FIP-2012-0004(통권 제194호, 2012. 12. 5)

**주요 지표를 통해 본
국내외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**

ISSUE
PAPER

Contents

< 요약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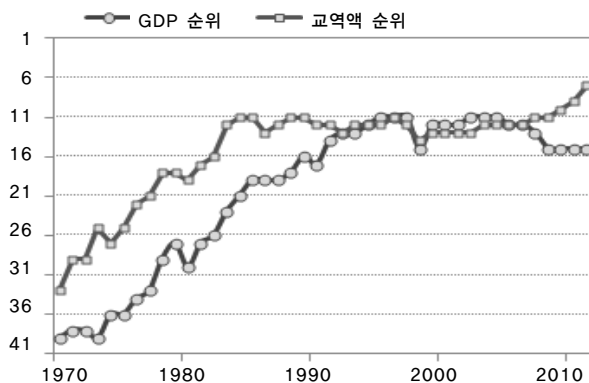
I. 연구 배경	1
II. 주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	2
1. INDEX 비교	2
2. 사례 분석	7
III. 시사점	10

-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·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.
- 이 자료는 본회 미래산업팀 현은경 연구원이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박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.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TEL : 02-6336-0642 FAX : 02-6234-5384 E-mail : christine@fki.or.kr

I. 연구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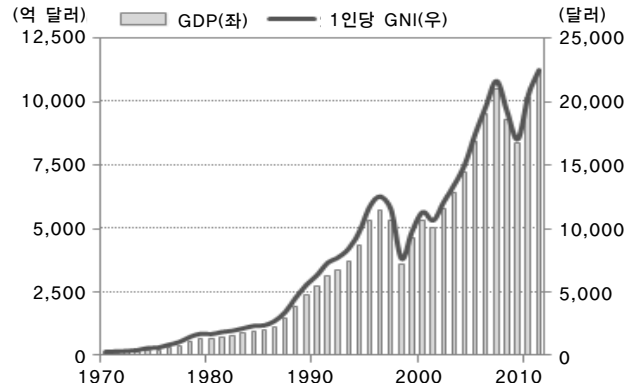
- 한국 경제는 지난 40여 년간 고도의 성장을 보였으며, 이러한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대기업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주도적 역할
 - 한국의 세계 GDP 순위는 1970년 81억 달러(39위)에서 2011년 기준 1조 1,164억 달러(15위)로 도약하였으며, 같은 기간 세계 교역액 순위는 255달러(33위)에서 2만 2,489달러(7위)를 기록
 - 1960년대 이후 한국 기업은 매년 매출액 증가율 20% 이상을 기록하였으며, 1970년대 초 2,460억 원이었던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1,558조 원으로 약 6천배 증가
 -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결과, 통신기기·자동차·반도체·선박 등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 상품을 수출하는 무역 강국으로 성장

< 한국 경제 규모의 세계 순위 >



자료 : UN, IMF, 무역협회

< 한국 경제 규모 및 국민 소득 >



자료 : 공정거래위원회, 한국은행

- 국내 기업의 성장세에 대한 글로벌 견제가 대두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, 한국에서 기업의 성과는 팔목할 만한 업적인데도 불구하고 반기업 정서와 함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
 -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과 해외 기업을 비교하여, 국내 기업은 본연의 성과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상대적으로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함
 - 본 연구는 비교 대상 기업 및 비교 항목 선정에 있어 자료가 불충분하여 결과에 대한 해석 및 유의성에 한계가 존재
 - 국가별 경영실적 분류 기준이나 해당 기업들의 공시 내용 기준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
 - 다만 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해외 기업과의 정량적 지표로 비교 분석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

II. 주요 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분석

1. INDEX 비교

- [비교 대상] Financial Times 500대(시가총액 기준) 기업 중 국내 기업과 동종 업계 1위 규모 수준의 선진국 기업

업종	국내기업	해외기업
Technology Equipment & Hardware	삼성전자(36위)	Apple(3위, 미국)
Automobiles	현대자동차(196위)	도요타(35위, 일본)
Industrial Metals	포스코(203위)	신일본제철(106위, 일본)
Industrial Engineering	현대중공업(240위)	캐터필러(94위, 미국)
Chemicals	LG화학(327위)	BASF(80위, 독일)

주 1) 괄호는 글로벌 순위

주 2) Industrial Metals(철강) : 1위 기업('아르셀로미탈')은 인도계 미탈스틸과 룩셈부르크 아르셀로의 M&A로 출범함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, '11년 매출액 기준 글로벌 3위인 신일본제철로 대체 (2위 : 포스코)

주 3) Chemicals(화학) : 자료 접근의 한계 등으로 1위 기업('아라빅', 사우디) 대신 BASF(2위)로 대체

- [비교 항목]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를 4개 영역(수출, 일자리창출, 연구개발, 납세·사회공헌), 8개 세부 지표를 비교 분석

- [수출]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의 해외 수출은 국가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는 효과
- [고용]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에 기여
- [연구개발] 기업의 R&D 투자는 대학 및 정부·공공분야의 과학기술 연구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역량을 제고
- [납세·사회공헌] 국가의 사회적 자산을 증가시키는 데에 기여

영역	지표	설명
수출	수출(해외매출)/국가상품수출	국가의 상품수출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
	수출(해외매출)/총매출	총매출 대비 수출(해외매출) 비중
고용	국내고용인력/국가취업자수	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
	국내인력비중	고용인력(해외 포함) 중 국내인력 비중
연구개발 (R&D)	연구개발비/국가R&D투자	국가 R&D 투자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
	연구개발비/매출	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집중도
납세·사회공헌	법인세/국가세입	국가의 세입에 대한 기업의 기여도
	사회공헌비용/매출	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의 비중

- [수출] 국내 주요 대기업은 비교 대상 주요 대기업에 비해 국가의 수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
 - [수출(해외매출)/국가상품수출]¹⁾ 국가의 상품수출 총액에서 기업의 수출(해외매출)이 차지하는 비율은 삼성전자(22.6%) > 애플(4.4%), 현대중공업(6.1%) > 캐터필러(1.3%)로 나타남
 - 국가별 주요 기업과 비교해도 삼성전자(한국)가 22.6%로 도요타(일본) 17.2%, 애플(미국) 4.4%, BASF(독일) 4.2% 등에 비해 높음
 - 독일의 BASF는 LG화학에 비해 국가상품수출 대비 해외매출의 비율이 다소 높으며, 현대자동차(수출)와 도요타(해외매출), 포스코(해외매출)와 신일본제철(수출)은 기준이 상이해 직접 비교가 어려움
 - [수출(해외매출)/총매출] 기업의 총매출 대비 수출(해외매출) 비중은 삼성전자(83.9%) > 애플(61.4%), 현대중공업(69.5%) > 캐터필러(32.8%), LG화학(63.4%) > BASF(60.8%) 등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
 - 국내 주요 대기업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, 품질, 디자인,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꾸준히 공략하고 있음
 - 특히 현대중공업은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 해양플랜트와 육상플랜트 시장을 주도하면서 해외매출 비중이 캐터필러의 2배 이상임
 - 현대자동차(수출)와 도요타(해외매출), 포스코(해외매출)와 신일본제철(수출)은 기준이 상이해 직접 비교가 어려움

< 수출(해외매출)/국가상품수출 >

< 수출(해외매출)/총매출 >

국내기업	비율	해외기업	비율
삼성전자**	22.6%	애플**	4.4%
현대자동차*	4.5%	도요타**	17.2%
포스코**	6.3%	신일본제철*	2.0%
현대중공업*	6.1%	캐터필러*	1.3%
LG화학*	2.3%	BASF*	4.2%

국내기업	비율	해외기업	비율
삼성전자**	83.9%	애플**	61.4%
현대자동차*	60.7%	도요타**	60.8%
포스코**	55.6%	신일본제철*	32.8%
현대중공업*	69.5%	캐터필러*	32.8%
LG화학*	63.4%	BASF*	60.8%

자료 : 각사 사업보고서, 각국 중앙은행

주1 : * 수출, ** 해외매출

주2 : 2011년 기준

자료 : 각사 사업보고서

주1 : * 수출, ** 해외매출

주2 : 2011년 기준

1) 기업의 해외매출은 국내 생산물량의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물량의 매출을 포함하므로 국가상품 수출의 구성부분이 아닐 수 있음 (해석에 주의)

- [고용] 국내 주요 대기업은 해외 경쟁 기업에 비해 국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
 - [국내고용인력/국가취업자수] 국가취업자수 중 기업의 국내 고용인력 비중은 삼성전자(0.42%) > 애플(0.03%), 포스코(0.07%) > 신일본제철(0.03%), 현대중공업(0.10%) > 캐터필러(0.04%) 등으로 나타남
 - 글로벌 대기업은 국가 경제에서 생산 및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직접 고용인력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
 - 한국의 취업자 수는 미국의 1/6, 일본의 1/3, 독일의 1/2 수준이며 주요 대기업의 직접고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함
 - [국내인력비중] 기업의 전체 직원 수 중 국내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대자동차(70.4%) > 도요타(60.5%), LG화학(58.9%) > BASF(46.8%) 등으로 나타남
 - 애플의 국내인력비중은 67.9%로 삼성전자(50.2%)보다 높지만, 애플은 미국 내 4만 3,000명, 해외에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한 데 비해 삼성전자는 한국 내 10만 2,000명, 해외에 11만 9,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
 - 애플은 외주 비중이 높아 협력사에 약 70만 명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이들 대부분은 미국이 아닌 아시아, 유럽 등지에서 일을 하고 있음
 - 해외 생산시설의 증가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국내인력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국내 대기업의 국내인력 비중은 아직 해외 경쟁사에 비해 높은 수준임

< 국내고용인력/국가취업자수 >

국내기업	비율	해외기업	비율
삼성전자	0.42%	애플	0.03%
현대자동차	0.24%	도요타	0.32%
포스코	0.07%	신일본제철	0.03%
현대중공업	0.10%	캐터필러	0.04%
LG화학	0.04%	BASF	0.13%

자료 : 각사 사업보고서, IMF
주 : 2011년 기준

< 국내인력비중 >

국내기업	비율	해외기업	비율
삼성전자	50.2%	애플	67.9%
현대자동차	70.4%	도요타	60.5%
포스코	-	신일본제철	-
현대중공업	-	캐터필러	42.6%
LG화학	58.9%	BASF	46.8%

자료 : 각사 사업보고서
주 : 2011년 기준

- [연구개발(R&D)] 국가 총 R&D 투자 대비 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,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유인하여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음
- [연구개발비/국가R&D투자]²⁾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비는 국내 총 R&D 투자의 22.8%에 달하며 국내외 기업을 통틀어 매우 높은 수준임
 - 삼성전자(22.8%)>애플(0.6%), 포스코(1.4%)>신일본제철(0.3%) 등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이 국가 R&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최근 기술지식경제의 심화, 과학기술의 융·복합화,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국가 R&D 역량에서 민간의 비중과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함
 - 우리나라의 총 R&D 투자는 아직 미국의 1/10, 일본의 4/1, 독일의 1/2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향후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R&D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
- [연구개발비/매출]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역시 삼성전자가 6.1%로 높게 나타남
 - 글로벌 경기침체, 무역장벽 완화, 기술보호주의 심화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&D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임
 -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업들은 해외 경쟁기업에 비해 연구개발비 비중이 다소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R&D 강화가 요구됨

< 연구개발비/국가R&D투자 >

국내기업	비율	해외기업	비율
삼성전자	22.8%	애플	0.6%
현대자동차	3.3%	도요타	5.2%
포스코	1.4%	신일본제철	0.3%
현대중공업	0.5%	캐터필러	0.5%
LG화학	0.8%	BASF	2.3%

자료 : 각사 사업보고서, OECD
 주1 : 기업 연구개발비는 2011년 기준
 주2 : 국가R&D투자는 한국·일본·독일 2010년, 미국2009년 기준

< 연구개발비/매출 >

국내기업	비율	해외기업	비율
삼성전자	6.05%	애플	2.24%
현대자동차	1.86%	도요타	4.20%
포스코	0.88%	신일본제철	1.14%
현대중공업	0.43%	캐터필러	3.82%
LG화학	1.51%	BASF	2.18%

자료 : 각사 사업보고서
 주 : 2011년 기준

2)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국내와 해외의 연구개발비를 합한 것으로, 국가R&D투자의 구성부분이 아닐 수 있음 (해석에 주의)

- [납세·사회공헌] 국내 주요 대기업은 해외 경쟁 기업에 비해 납세 및 사회 공헌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음
 - [법인세/국가세입] 국내 5개 기업의 납세를 통한 국가 경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국가 세입에서 기업의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6.8배, 현대자동차가 도요타의 4.4배,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의 9.0배, 현대중공업이 캐터필러의 9.5배 수준임
 - 정부는 세금으로 공공·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, 납세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
 - [사회공헌비용/매출] 기업의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의 비중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비해 최대 18배 수준을 나타내는 등,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국내 주요 대기업 중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중공업(0.37%)으로 나타남
 - 현대중공업은 ‘함께 잘 사는 공동체’를 만들고자 했던 창업자의 정신을 계승하여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는 등 기업 내 사회공헌 문화가 정착되어 있음
 - 반면, 애플은 사회공헌에 인색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 스티브잡스가 복귀한 1997년 이후 모든 사회공헌·기부 프로그램을 없앤 바 있음

< 법인세/국가세입 >

국내기업	비율	해외기업	비율
삼성전자	1.15%	애플	0.17%
현대자동차	0.79%	도요타	0.18%
포스코	0.36%	신일본제철	0.04%
현대중공업	0.38%	캐터필러	0.04%
LG화학	0.21%	BASF	0.21%

< 사회공헌비용/매출 >

국내기업	비율	해외기업	비율
삼성전자	0.18%	애플	0.00%
현대자동차	0.10%	도요타	0.07%
포스코	0.10%	신일본제철	0.01%
현대중공업	0.37%	캐터필러	-
LG화학	0.11%	BASF	0.07%

자료 : 각사 사업보고서, IMF
 주 : 2011년 기준

자료 : 각사 지속가능보고서 등
 주 : 2011년 기준(단, 도요타는 2010년 기준)

2. 사례 분석

- [애플] 애플은 상대적으로 국가 경제의 공생발전과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
 - 애플은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2배에 이르는 30.4%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, ‘고용 없는 성장’에 대한 비판이 상존
 - 자체 공장 없이 부품을 싸게 조달하여 외부에서 조립하는 생산 방식을 채택
 - 미국에 있는 애플 본사는 제품의 기획, 설계, 소프트웨어 개발, 마케팅을 담당하지만 실제 기기의 생산은 중국의 선전 공장 등 해외에서 이루어짐
 - 애플은 미국 노동자보다 해외 노동자들이 유연성, 근면성, 숙련도에서 앞서기 때문에 Made in USA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함(美 ‘NY Times’)
 -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력사에 납품 단가 인하를 강제하거나, 위약 사항 발생 시 납품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달아 알려짐
 - 아이폰, 아이패드 등을 ODM(제조사개발생산) 방식으로 만드는 대만 폭스콘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손꼽히며, 애플이 협력사에 저가의 비용과 빠른 제조공정을 요구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
 - * 중국 현지 인력 100만 명 이상을 고용한 폭스콘 공장에서는 30초당 제품을 하나씩 조립해야 하고, 14시간 업무를 하는 동안 화장실을 3번 이상 갈 경우 임금이 삭감되는 등 혹독한 근로환경에 처하여 자살과 파업 사태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(英 ‘Mirror’)
 - * 폭스콘의 '11년 영업이익률은 1.1%에 그쳐, 삼성전자의 주요 10개 휴대폰 협력사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8.4%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임
 - 일본 중견 전자부품 제조사 ‘시코’는, 애플의 대량 주문을 전제로 한 무리한 시설 증대 요구와 갑작스런 대규모 납품 주문 취소의 영향을 받아 도산('12.8월)
 - * 애플의 대량 주문에 맞추어 신규 설비 투자를 이미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, 시코의 '07년 환율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손실과 같이 부품(스마트폰 소형카메라용 자동초점 모터) 제조와는 무관한 재무상황을 이유로 기존의 주문을 취소하고 경쟁사에 넘김
 - 비밀주의 기반의 공급망 관리와 협력사 복수 운영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음
 - 애플은 협력사들에게 비밀을 발설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변상하게 하는 ‘비밀보호유지계약(NDA)’을 맺도록 요구하고 있으며, 이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거액의 위약금이나 계약 취소가 두려워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음(日 ‘주간 다이아몬드’)
 - 샤프, 엘피다, 소니, 도시바, 파나소닉 등 일본 주요 대기업을 포함해 다수의 아시아 전자·부품 업체들이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‘아이팩토리(iFactory·애플 하청회사)’가 되는 종속화가 심각해지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

- [일본 제조업] 일본 제조업 기업의 탈일본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본내 산업공동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
- 일본 정부는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경우 '20년까지 476만 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해외로 진출했던 일본 기업의 U턴(U-Turn)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으나 탈일본 현상이 심화
 - 일본 제조업의 국내설비투자 대비 해외설비투자 비중은 2009년 42%, 2010년 55%, 2011년 74%로 증가하는 추세
 -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2010년 국내설비투자는 6.3% 증가한 반면, 해외설비투자는 59.5% 증가하여 대내외 투자격차가 매우 큰 상황
 - 또한 신일본제철, JFE철강, 스미토모금속, 코베제철소 등은 자동차용 강관의 해외 생산능력을 2013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임
 - 일본 경단련에 따르면 해외 이전을 계획하는 기업의 38%가 기업의 핵심 기능인 생산기지, 연구개발, 본사기능 등을 이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
- [국내 기업]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정부·기업·국민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며, 기업의 기술개발·인력 운영·사회공헌·잠재력 등의 측면에서 강점을 보임
- 국내 주요 대기업은 원가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면서도 정부와 국민의 동반성장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병행
 -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투자 부진 및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
 - 국내 주요 대기업은 국내 투자 확대, 그룹 내부거래 자제, 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, 중소기업 적합업종 철수, 고졸 채용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음
 - 삼성전자는 성장을 기반으로 고용 및 R&D 투자 확대, 구매비용 증대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재무·비재무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
 - 삼성전자가 수원에 건설 중인 새로운 R&D 센터가 2013년 준공되면, '디지털 시티'는 연구인력 약 2만 3,000명이 상주하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
 - 삼성전자는 협력업체 상생펀드 운영 등 동반성장 7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기존 1차 협력사 중심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, 3차 협력사까지 확대
 - 또한 대졸 신입사원 중 여성 비중은 2009년 21%에서 2010년 26%, 2011년 30%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,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

- 현대자동차는 성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지원함으로써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
 - 성과공유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성과 배분이 아니라 장기적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기술력 육성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함
 - 공동개발(183건), 공동특허(110건), 특허권제공(533건), 무상기술이전(1건), 게스트엔지니어(56사, 305명), 해외동반진출(1차사 : 233사, 2차사 : 197사) 등 6대 성과공유 프로그램이 성과적으로 운영됨(2011년 1월 ~ 10월 기준)

Ⅲ. 시사점

-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,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
 -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비해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음
 - 주요 지표를 비교한 결과 특히 생산, 고용, 납세·사회공헌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음
 - 사례 분석의 예에서도 해외 기업은 자국 경제에 대한 기여보다 원가 절약 및 효율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, 국내 기업은 기술개발·인력운영·사회공헌·향후 잠재력 등에서 해외 기업 대비 강점을 보임
 - 최근 들어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, 대내외 경기 불안 요소 확산, 정책적 규제 확산 움직임 등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
 - 잠재성장률 하락(90년대 5.0%→2010~15년 3.8%, 2016~26년 2.4%), 제조업 설비투자증가율 감소(90년대 9.1%→2000년대 3.9%), 제조업 일자리 수 감소(2000년 429만 명→2011년 409만 명), 노사관계 불안정성(2011년 IMD 국가경쟁력 노사관계 부문 59개국 중 53위)
 -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·장기화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서도 자국 시장과 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, 국내 기업의 빠른 성장세에 대한 견제가 가시화되고 해외 시장과 기술 관련 리스크가 커지고 있음
 - 정책적으로도 R&D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 축소 및 규제 움직임 확산으로, 기업 경영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중
 - 국내 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
 - 협소한 국토와 자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, 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세계화를 준비하는 실용주의적 기업관이 필요
 -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의 자본 확충을 위한 기업들의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하며, 새로운 투자수요 발굴, 기업규제 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이 요구
 - 기업에 친화적인 사회적 정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, 기업 스스로도 투명성 확보·투자 확대·고용 창출 및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함